

류큐 왕국의
역사와 영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오키나와현은 15세기 중반부터 약 450년간 슈리성을 중심으로 한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류큐 왕국의 구스쿠 및 관련 유산군'에서는 아시아와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섬나라로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왕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터와 건물 양식에서는 고도의 기술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당시 사람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WORLD HERITAGE

세계유산

1 슈리성 터

류큐 국왕이 거주하는 성이었던 슈리성은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전파의 중심지였다. 일본과 중국의 건축 양식을 도입했다.

※2019년 10월에 발생한 화재로 정전 등 8개 동이 소실됨. 2026년도 재건 예정.



2 나키진 성터
삼산 시대 북산왕의 거성. 성 전체의 규모는 슈리성 다음으로 크며, 성벽은 아름다운 곡선 형태다.



3 자키미 성터
무장 고사마루가 15세기 초기에 축성. 오키나와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형 석조문 등 정교한 석축 기술이 특징.



4 가쓰렌 성터
계단 형태로 이어진 4개의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 안에 있는 여러 잔존물을 통해 당시의 번영을 엿볼 수 있다.



5 나카구스쿠 성터
자키미성을 축성한 고사마루가 성주. 나카구스쿠 만을 따라 고지대에 축성되었으며, 성곽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



6 소노한우타키이시몬(성지)
류큐 왕국 시대, 왕가의 사당이었던 류큐 석회암 석문. 국왕의 외출 시에는 여행의 안전을 기원했다.



7 다마우둔(왕릉)
다이니쇼시 왕통의 역대 국왕들이 잠들어 있는 능묘. 중실, 동실, 서실로 이어지는 묘실에 유골이 안장되어 있다.



8 시키나엔(정원)
일본, 중국, 오키나와의 정원 기술이 융합된 류큐 왕가의 별저. 중국에서 온 책봉사를 대접했다.



9 세화우타키(성지)
류큐 개벽의 신 아마미키요가 만들었다는 일곱 개의 우타키 중 하나. 현재도 신앙이 두터운 성지로 여겨진다.

오키나와현 곳곳에 있는 5개의 구스쿠와 4개의 관련 시설이 유구한 역사를 전해 준다



칼럼

슈리성의 부흥을 기원하는 다양한 이벤트

슈리성 부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파손된 기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회철을 벗기거나 파손된 기와로 회반죽을 만들어 시사를 제작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션 맵핑이나 현지와 연계한 기수 연무도 개최 중입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슈리성에 대한 마음을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내며 부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곡 풍작을 기원하는
풍년제



제사 및 축제

RITUAL &



풍어와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하리



류큐 왕조 시대의 행사를
재현한 슈리성 축제

지역에 뿌리내린 전통 행사와 축제

오키나와에는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행사와 축제가 있으며 각 계절마다 개최됩니다. 조상을 맞이하는 음력 오봉 (일본의 추석) 을 비롯해 오곡 풍작과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축제, 악귀를 쫓는 것 등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색도 풍부합니다. 전통 축제를 소중히 계승하는 한편, 화려한 요소를 도입해 오락성이 뛰어난 축제도 열리는 등 오키나와 현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탈을 쓴 내방신이 진흙으로
액막이를 하는
미야코 섬 '판투'



풍년을 기원하는
다라마 섬 '8월 춤'

조상과 신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의 번영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연무를 봉납한다



자손의 번영과 무병안녕을 기원하는 나하 큰줄다리기(세계 최고의 밧줄 크기)



박진감 넘치는 연무로
조상을 공양하는
전통 예능 '에이사'



북이나 산신의 연주에 맞추어 추는 사자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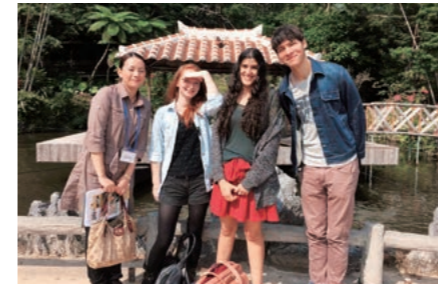


오곡풍작, 무병안녕을 기원하는 오기미촌 '운가미(해신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며
더욱 발전한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면서
성장해 온 오키나와현. 시대마다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이며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오키나와계 민족을

비롯해 세계의 우치나 네트워크를
기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관광,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오키나와를 안내



전통 공예를 체험하는 외국인 관광객



오키나와 국제 협력 및 교류 페스티벌 2020
'오키나와의 미래 SDGs 액션을 만들자' 토크 라이브

INTERNATIONAL

국제 교류

오키나와에 뿌리를 둔 세계 각지의
오키나와계 사람들이 고향인
오키나와에 모여서 개최하는
이벤트 '세계 우치난추 대회'



오키나와로 이주해 치즈 가게를
운영하는 외국인 점주

EXCHANGE

칼럼

세계
우치난추의 날

2016년에 열린 '제6회 세계 우치난추
대회'에서 10월 30일을 '세계 우치난추의
날'로 제정했고, 매년 오키나와현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를 개최합니다.

